



보도시점 2024. 4. 5.(금요일) 배포 2024. 4. 5.(금요일)

올해 재외동포 차세대 2천명 모국 초청

- 재외동포청, 총 8회 모국 연수·역대 최대 규모

- 이기철 청장 “차세대 정체성 함양과 발전상 이해 기회 제공”

□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재외동포 차세대 2천명을 초청해 모국 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.

○ ‘2024년 재외동포 차세대 모국 연수’는 총 8회에 걸쳐 각 6박 7일 일정으로 실시한다.

○ 이번 연수에는 전년 1천307명 대비 53% 늘어난 차세대가 참여할 계획이다. 청소년 1천300명과 대학생 700명이 모국을 찾는다.

〈차수별 연수초청 인원〉

구분		기간	초청 인원
1차	청소년	2024. 7. 15.(월)~7. 21.(일), <6박 7일>	300명
2차	청소년	2024. 7. 22.(월)~7. 28.(일), <6박 7일>	300명
3차	대학생	2024. 7. 23.(화)~7. 29.(월), <6박 7일>	300명
4차	청소년	2024. 7. 29.(월)~8. 4.(일), <6박 7일>	300명
5차	청소년	2024. 8. 5.(월)~8. 11.(일), <6박 7일>	300명
6차	대학생	2024. 8. 6.(화)~8. 12.(월), <6박 7일>	300명
7차	청소년	2025. 1. 13.(월)~1. 19.(일), <6박 7일>	100명
8차	대학생	2025. 1. 14.(화)~1. 20.(월), <6박 7일>	100명

□ 이 사업은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한국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한국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인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

- 특히 올해는 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, 한국 역사 이해, 유적지 및 관련 시설 방문과 한국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리더십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이기철 청장은 “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”며 “차세대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고, 모국 연수 후 거주국 동포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하고, 자랑스러운 모국과 함께 상생해 나가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인권과	책임자	과장	김채영	032-585-3213
		담당자	사무관	김주동	032-585-3214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